

# “탄소예술 독창성 표현한 작품 만나요”

전주문화재단, 12월 31일까지 ‘탄소예술기획전 탄소와 예술: 연대와 확산’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육선)은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1일간 전주팔복예술공장 전시실에서 2023 탄소예술기획전 <탄소와 예술: 연대와 확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예술가의 예술 실현 무대를 확장하는 한편, 산업의 연구과제를 발굴해 탄소 소재 활용 가능성을 넓혀 동반 성장하고자 했다. 또 예술과 산업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연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는 회화, 조형, 도예, 목공예, 옷칠나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가로 김승주, 나잇노이즈, 문재원, 박성수, 박현진, 백미숙, 류명기, 이주리, 이상훈, 전도예, 정유리, 최무용, 한정무 등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13명의 예술가는 작가정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탄소예술의 독창성을 표현한 다양한 창작작품들로 49점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탄소를 통해 예술로 승화시켜낸 작품들로 산업과 예술의 융합을 이

뤄내는 동시에, 탄소예술 확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마련했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21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참여작가와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후원기업(썬카텍에이치, 탄소 기업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백육선 대표이사는 “탄소예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매체의 가능성을 확인받은 만큼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탄소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로,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일 재단에 따르면 탄소라는 새로운 예술 매체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제시하며 새

로운 예술장르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전주의 대표적인 탄소산업과 예술의 협업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회차의 탄소예술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30명의 탄소예술 작가와 약 100여 점의 탄소예술 작품을 제작해 탄소예술작가의 발굴과 육성은 물론, 탄소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산업과 예술 분야 협력망 구축과 탄소 예술 진흥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산업용 탄소 소재를 예술 분야로 넓히는데 이바지했다. 국내 최대 탄소섬유 리사이클링 기업인(썬카텍에이치)에서 재활용 탄소섬유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탄소섬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다양한 탄소예술 작품의 실현을 이뤄냈다. 또한 서울과 프랑스에서 개최된 산업박람회에 참여해 탄소예술 작품 순회전을 선보인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익산 브랜드 공연’ 초연 호평

대중성 · 관광 상품화 가능성 보여줘

익산시 대표 공연인 익산시립예술단의 ‘익산 브랜드 공연’이 초연부터 관객들의 호평을 받는 등 대중성과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이달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익산시립예술단의 익산 브랜드 공연 ‘웨스트 앤 이스트(West & East)’를 처음 무대에 올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어 좋은 평가를 얻어냈다.

무명의 어머니가 용과 관계하여 태어난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 등을 노래와 춤과 연희가 어우러지는 가무악극으로 잘 보여줘 익산시민의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등



익산시립예술단의 3개 예술단의 노력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무용극을 기본으로 하는 오페라 연희 댄스컬로 구성되는 등 브랜드 공연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시는 브랜드 공연이 첫 무대부터 인기를 끄는 등 향후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지역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향후 브랜드 공연의 상설화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최북미술관 신진작가발굴 기획전

‘자연과 인간의 공존’ 주제 작품 전시

무주군은 2023년 최북미술관 신진작가발굴 기획전(展) ‘자연:공존’이 오는 12월 24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의 발전과 다양성을 추구에 필요한 젊고 유망한 지역 자가를 발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강유진, 김승현, 김하은, 엄수현 등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신진작가 4인이 그려낸 한국화와 서양화 작품 30점과 만날 수 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미학적으로 표현해낸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유진 작가는 ‘흔적’, ‘멈추지 않는 축제 북쪽길’, ‘보호수’ 등 9점의 작품 속에 ‘신축된 여윘동과 잠식한 풀’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강 작가는 “여윘이라는 이름 위에 수없는 갈망이 담겨 있고 그 틈에도 생명은 살아 숨 쉰다”라며 “각자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성실히 지어지고 서서히 잠식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식물들의 모습에 인간사회를 투영시켰다는 김승현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A Society’와 ‘Cometion’, ‘Selfish’ 등 ‘선인장’을 표현한 작품 6점을 선보였다. 작가는 작품 설명을 통해 “선인장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는 나”라고 밝혔다.

“느린 꽃놀이”를 주제로 ‘길 위에서’와 ‘어느 오후’, ‘궁금하면 맛보면 되지’ 등 8점의 작품을 내놓은 김하은 작가는 “삶의 길목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생(生)의 변주는 생동하는 자연으로부터 더듬는 과정”이라며 “이번 작품들은 이에 대한 사유를 은유적 방식으로 정제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Rainy day’, ‘달이 높이도 솟았구나-heart’, ‘밝은 달 아래서-운전’ 등 “우리 모두의 기억”을 주제로 총 7점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엄수현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된 자연, 그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장면이 빔대에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무주읍 최북로 15 / 063-320-5636)에 있는 최북미술관은(제1종 공립미술관)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관람(월요일 휴관)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성 기자

ESG 가족 뮤지컬 ‘멜로미의 노래’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2023년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제작소 선(대표 최선주)이 오는 22일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오전 9시30분과 11시 두차례 ESG 가족 뮤지컬 ‘멜로미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멜로미의 노래’는 창작제작소 선이 도전하는 첫 번째 창작뮤지컬로, 최근 기후위기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상실감과 회복을 다룬 작품이다. 산발로 부모를 잃은 말하는 새 ‘멜로미’와 산발을 끄기 위해 집을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찾아 떠나는 ‘투이’가 주인공이다. 이 둘은 험난한 여정을 같이 겪으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게 된다.

작품의 주요 모티브는 실제 새를 키웠던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긴 여행을 떠났다’며 하늘나라로 새를 떠나보낸 아이의 이야기와 매해 지구가 겪는 기후위기를 통해 우리가 겪는 상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이번 공연을 통해 보여 주고자 했다.

극작과 연출에 김소라 예술감독(아트컴퍼니 두루)이, 작곡·편곡에 손봉기 프리랜서가 참여하며, 출연진으로 투이 역에 박민술(2022년 뮤지컬 마틸다 출연), 멜로미 역에 최다혜, 아빠 역에 이종화(창작극회) 배우가 맡았다.

최선주 대표는 “이번 공연은 ESG 경영을 추구하는 ‘창작제작소 선’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ESG 관점에서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서로 공존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고창군 모양합창단 정기연주회 열려

고창군모양합창단(단장 최영호)이 지난 18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제19회 모양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가을 시에 물들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꽃구름 속에’, ‘시간에 기대어’, ‘남만에 대하여’, ‘진달래꽃’, ‘동심초’ 등 8곡을 선보였다. 또한 영광 여성합창단과, 국악예술단 고창이 게스트로 참여해 연주회를 더욱 빛을 내주었다.

고창군민 41명으로 구성된 고창모양합창단(남녀 혼성)은 2002년 여성합창단으로 창단되어 지금까지 총 19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모양합창단은 고창청보리밭축제, 2023 고창문화도시 치유문화축제에도 공연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재능공연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문화장터’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11월 중 3회 걸쳐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역적 여건, 고령 등으로 인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힘든 동네 지역 주민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직접 찾아가는 행사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지난 9~10월 진행된 문화장터 이용자 중 90% 이상이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가맹점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좋았다”, “캠핑용품이 필요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할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에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에도



리카드를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삶의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